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인물이 처한 상황, 상징하는 것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되, 자주 출제되는 구절이 있으므로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나)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몰려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갈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

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썼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라)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중략>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던.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

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 하고는 상관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 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 “할아버지도 난쟁이었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마)

㉤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십칠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이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 못 갈 거 아녜요?”

“무슨 돈이 있대구!”

“분양 아파트는 오십팔만 원이구 임대 아파트는 삼십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만 오천 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세태를 비판한다.
- ② ㉡: 난쟁이가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뜻한다.
- ③ ㉢: 철거 계고장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 ④ ㉣: 어머니가 문맹(文盲)임을 알 수 있다.
- ⑤ ㉤: 난쟁이가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한다.

2. 밑줄 친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억압된 삶에 길들여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 ② ㉡: 세상은 비판적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 ③ ㉢: 할아버지도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나고 묻고 있다.
- ④ ㉣: 영호에 대한 못마땅한 심리를 드러낸다.
- ⑤ ㉤: 영희가 울고 있음을 의미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 전쟁과 같았다.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㉔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다)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㉔‘**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㉔**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㉔**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 하고는 상관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

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 주느라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 위 글은 ‘빈민들의 현실 제시라는 사실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적 성과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 글에서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과 그 의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난쟁이 가족의 고단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 산업화의 황포가 난쟁이 가족의 삶을 불행하게 할 것임을 표현하였다.
- ③ ㉢: 난쟁이 일가의 빈곤과 가난을 상징한다.
- ④ ㉣: 가난과 신분이 대물림되어 자손들에게까지 세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꿈이 담긴 소재이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 ② ㉡: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표현한 말이다.
- ③ ㉢: 난쟁이 가족에게 닥친 현실이 단적으로 표현된 말이다.
- ④ ㉣: 한자성어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상황이다.
- ⑤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5. (나), (다)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한 내용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나)의 ㉠에서는 법이 소외된 계층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난다.
- ㄴ. (나)의 ㉡에서는 도덕적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표현하고 있다.
- ㄷ. (다)의 ㉣를 통해 ‘나’의 조상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ㄹ. (다)를 통해 ‘나’의 할아버지는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빈곤을 세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ㅁ. (다)를 통해 ‘나’의 증조부와 ‘나’의 할아버지는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좌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신유형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큰아들인 ‘영수’가 난쟁이가 가족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상징적,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보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 작품 감상 후 반응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으니 작품의 내용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1-

197×.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추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다)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중략>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 주느라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6. <보기>를 읽고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보기> —

급속한 공업·산업·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다. 이들은 서울의 청계천 변과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350만 평의 땅(광주 대단지)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9년 9월 1일부터 20평의 땅을 분양해 이곳에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신도시에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니 언덕이 많은 값싼 대지를 마련한 것이다.

게다가 철거민이 이주할 당시 이곳은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공중화장실마저 변변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대충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입주권, 즉 딱지가 전매되고 이 딱지를 얻기 위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단대천 주변에 천막을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 이렇게 성남시에 몰린 인구는 1971년에 14만~16만 명까지 늘었다.

- ① 낙원구 행복동은 도시 빈민 주거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철거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장소이다.
- ② 철거 계고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난쟁이의 집이 무허가 판잣집임을 알 수 있다.
- ③ 영희 엄마가 투기업자에게 판 입주권은 딱지로 전매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 ④ 난쟁이 가족의 이야기는 도시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현실을 보여준다.
- ⑤ <보기>의 글로 보아 난쟁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위치에서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한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주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인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의 외부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묘사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8. 위 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화적인 제목과 상징적 소재가 주제를 더 부각시켜준 것 같아.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의 의식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서술되고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어.
- ③ 난쟁이 가족이 철거에 저항하며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도 극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 ④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였던 조상의 가난이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 난쟁이에게까지 대물림된 모습에 슬픔을 느꼈어.
- ⑤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①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②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1-

197×.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중략>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중략>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였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 하고는 상관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 주느라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다.
- ② 짧은 길이의 문장으로 장면 전환을 빨리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작품 속의 특정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 진술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⑤ 인물의 사회적인 결핍을 신체적인 장애와 결부하여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10.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위 작품은 작가가 기자 시절 취재를 나갔던 현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도시 변두리 철거민촌을 대표하는 난쟁이 일가의 비참한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 빈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가난한 소외계층과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모습을 파헤침으로써 1970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노동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또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취하여 노동계층의 비참한 생활상과 잘 사는 계층의 화려하고 타락한 생활상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1970년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① 난쟁이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도시 재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군.
- ②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빈민촌은 ‘없는 자’의 공간으로 경제적 궁핍을 상징하는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군.
- ③ ‘주머니가 없는 옷’은 ‘주머니가 달린 옷’과 대비되는 소재로 주머니에 담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군.
- ④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주택가 건너편은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꿈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들 옆엔 법이 있다’는 말을 통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법의 비호를 받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군.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늘 좌절을 겪어야 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 ② ㉡: '나'의 가족에게 희망과 절망을 안겨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소재이다.
- ③ ㉢: 난쟁이가 가족의 처지와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지명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한다.
- ④ ㉣: 공장의 굴뚝 그림자 묘사를 통해 난쟁이가 가족에게 닥칠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발화이다.
- ② ㉡: 상대의 발화 의도를 몰라서 취하는 행동이다.
- ③ ㉢: 상대의 대답에 고무되어 솔깃해하는 말이다.
- ④ ㉣: 신체적 결함을 근거로 대상을 비난하는 말이다.
- ⑤ ㉣: 상대의 발화 의도를 알지만 따라줄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중략>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 하고는 상관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는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㊸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 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 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1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객관적 시각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피해의식이 있는 난쟁이 가족과 외적으로 동일시되는 모습이다.
- ② ㉡: 난쟁이 가족이 처한 현실과 일치되는 지명으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
- ③ ㉢: 인물이 회피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④ ㉣: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수용하려는 모습이다.
- ⑤ ㉣: 기존에 세습되어 오던 문제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낸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1970년대 가상의 공간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사회적 문제인 빈부 격차,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피해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게도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교육과 경험의 부재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잃었다는 점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와 대비되는 마을 사람들의 호전적인 태도에서 도시 빈민들의 비정한 삶과 좌절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철거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서 철거민은 살 수 없는 현실은 결국 빈부 격차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불법을 자행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에서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입주권을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에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도시 개발자들의 피해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나)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사람의 외적인 면만 보고 내면은 보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② 철거 계고장으로 인해 난쟁이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기어코'라는 표현과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 준 것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공장의 어두운 굴뚝 그림자가 난쟁이 가족의 마당을 덮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 정답 ②

집과 땅을 갖게 되어도 교육을 받지 못해 결국 잃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노비제가 사라졌음에도 노비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③ 여기에서 '난쟁이'는 육체적 장애를 의미함과 동시에 무력감, 경제적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영호의 질문에 대한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전 장면에서 영희가 울었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정답 ⑤

㉔의 '책'은 노비 매매 문서를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신들의 생활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공장의 굴뚝은 산업화를 의미하는 소재인데, 어두운 그림자가 난쟁이 가족의 마당을 덮었다는 표현은 산업화의 횡포로 인해 난쟁이 가족의 삶이 불행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난쟁이 가족이 먹

을 수 없는 '고기 굽는 냄새' 나는데, 영희는 '풀 냄새'가 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노비의 자식이 노비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정답 ⑤

철거에 대비하는 모습이므로, 생활의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면서 경제적 결핍을 겪는 인물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전쟁'은 경제적 결핍과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이후에 집이 철거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적절하다.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은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을 뜻하므로 적절하다.

### 5. 정답 ④

ㄱ. 철거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이 난쟁이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ㄴ. '나'의 조상은 노비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할아버지는 증조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으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경험도 없어서 결국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ㄹ. ㉔는 원망의 감정으로 한 말이지 아버지의 도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ㅁ. (다)에서 증조부는 주인에게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6. 정답 ①

낙원구 행복동은 도시 빈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집마저 철거당하는 곳으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보기>의 내용에서 입주권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살던 곳이 철거되었지만, 새로운 곳으로도 이주하기 어려운 철거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 ⑤ <보기> 내용에서 서울시가 주도하여 철거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위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큰아들인 영수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위 글은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8. 정답 ③

어머니가 표찰을 떼는 모습이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체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항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동화적인 제목과 ‘낙원구 행복동’과 같은 반어적 표현 등은 고통스러운 난쟁이 가족의 삶을 더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나)에서 영희가 우는 장면을 매개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였는데 (다)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등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서술되고 있어서 내용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④ 현재의 어려움을 나타낸 후에 그들의 조상도 노비였음을 드러내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③

난쟁이 가족의 큰아들은 영수가 서술자가 되어 가족의 일을 전달하고 있다.

- ① 사건의 결과가 처음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것은 사실이나 장면 전환이 빠르다고 할 수 없다.
- ④ 중간에 과거 회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다.

- ⑤ 아버지의 사회적 결핍을 신체적 장애와 결부하여 드러낸 것은 맞지만,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0. 정답 ④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주택가 건너편은, (가)의 ‘우리는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는 표현을 통해, 열심히 일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① 집이 철거당하게 되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빈민촌은 <보기>에서 설명한 ‘노동 계층의 비참한 생활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없는 자’의 공간이자 ‘지옥’과 같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주머니가 없는 옷’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을 게 없’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 ⑤ ‘그들 옆엔 법이 있다’는 말에서 법이 소외된 계층을 보호해 주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 드러난다.

11. 정답 ②

철거로 인해 난쟁이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므로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 ① ‘전쟁’은 경제적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 ③ ⊕은 난쟁이 가족의 절망적인 현실과는 대조되는 지명으로 반어적인 표현이며 난쟁이 가족의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④ 공장의 어두운 굴뚝 그림자가 난쟁이 가족의 마당을 덮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서술자의 인식이 드러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2. 정답 ⑤

아들의 말을 당장 들어줄 수 없기에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상대의 발화 의도를 알고 있지만 대답하기 곤란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이다.
- ③ 상대의 발화를 믿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 ④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경제적 결핍을 근거로 대상을 비난하는 말이다.

13. 정답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주관적 생각이 드러나며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①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인물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거나 갈등 해결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
- ③ 윗글은 작중 인물인 '나'가 서술하고 있다.
- ⑤ 객관적 시각으로 역사적 사건을 회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정답 ④

집이 철거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 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있는 난쟁이가 가족과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 ② 난쟁이가 가족의 불행한 현실과 상반되는 지명으로 현실의 모순을 부각한다.
- ③ 철거 소식에 놀라 돌아온 것으로 회피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기존에 세습되어오던 가난하고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③

아파트는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 철거민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소외된 계층은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게끔 만드는 사회 현실과 해결되지 않는 빈부 격차를 드러내며 비판하고 있다.

- ①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교육과 경험의 부재 때문에 땅을 잃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마을 사람들도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은 사람들로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 의견을 이야기하

는 것이므로 빈민들의 비정한 삶을 확인한다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

- ④ 난쟁이가 가족이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도시 개발자들이 아니라 도시 빈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6. 정답 ⑤

영수가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대응 방식을 거부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다)의 끝부분에서 과거 회상이 드러난다.
- ② 문장의 길이가 짧아 내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 ③ '벽돌 공장의 굴뚝'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④ 서술자인 영수의 시선에서 난쟁이가 가족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난다.

17. 정답 ⑤

선인이 악인이 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시 빈민들의 삶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 ② 동사무소 앞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현실을 수용하고 체념한 영수 부모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도시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고 살던 곳만 빼앗기는 철거민들의 상황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이 드러난다.
- ④ 아버지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고 가난한 계층을 상징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8. 정답 ④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에서 빈곤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에는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입주권으로 투기를 하려는 거간꾼들의 모습이 나타나